

제5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공모 당선 작품소개

이 글은 당협회가 '89년도 우유 공동홍보의 일환으로 제5회 전국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작품을 공모한 결과 총 응모자 7,712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새싹회 아동문학가 윤석중씨를 통해 엄격한 심사결과 최우수작 1편, 우수작 2편, 가작 5편, 입선작 10편, 장려상 30편 등 총 48편이 당선되어 지난 호에는 가작4편을 소개하였고 이번호에는 가작1편, 입선작4편을 소개하며 잔여 입선작, 장려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본지에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註)



가작



나는 우유 대장

마석국민학교
1의3 박 호 신

국민학교 1학년인 내가 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오다가 보면 “에! 3학년이 벌써 끝났니?” 하고 물어보시는 아주머니가 가끔 계신다. 나를 1학년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친구들보다 머리 하나는 큰것같다.


발도 235mm나 되어서 우리 선생님신발과 거의 비슷하다. 옆집아줌마는 우리집에 놀러 오셨다가 급하면 내 신발을 신고 가신다. 사람들은 내가 키가 커서 반장으로 뽑혔는지 알고 있다. 사실은 우유를 많이

먹다보니까 건강하고 공부도 잘해서, 우리반에서 나보다 힘세고 키크고 선생님말씀 잘듣는 친구가 없기 때문인 것 같다. 우리 엄마는 내가 우유를 많이 먹어서 똑똑하다고 하신다. 우리 엄마는 한달 우유값으로 5만5천백원을 쓰신다.

우리집에서 1000ml팩과 500ml팩을 받고 학교에서 작은 팩 2개를 먹는다. 또 할아버지택에 500ml를 배달 시켜드리는 우리엄마는 부모님께도 참 잘해드리는 효녀인것 같다. 나는 우유가 참 고소하고 맛있다. 밥을 먹고 물대신 우유300ml를 먹는다. 그러니까 하루에 900ml를 먹는 셈이다. 여섯 살인 내 동생도 하루 세 번 먹어서 그런지 키가 우리 반 내 친구들만큼 크고 튼튼하다. 우리 아빠께서는 아침에 출근하실때 꼭 한 잔씩 드시고 가신다.

그런데 가슴아픈 일이 한 가지 있다.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신 우리 엄마께서 우유를 잡숫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엄마는 감기도 잘 걸리시고 자주 아프다고 하신다. 우유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것 같아 나는 이번 글짓기를 하면서 엄마께서도 우유를 잡수실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덜 먹어야겠다고 생각해 보았다.

우유덕분에 내 키가 너무 너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 키만큼 크기엔 마음이 너무 모자란 것 같다. 앞으로는 귀여운 동생과 싸우지 않고 고마우신 우리 엄마 말씀도 잘 듣는 키만큼 마음도 커다란 착한 어린이가 되고 싶다. 나는 우유 대장이니까.



나의 건강과 우유

순천 북 국민학교
6의5 강 승 희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외치고 대문을 들어서자

“승희니? 맛있는 고구마 삶았다. 와서 먹으렴”

“와, 우리 엄마 최고다”하고 외치며 들어가 책가방을 놓고 방으로 들어가니 어머니의 말씀 그대로였다.

“잘 먹겠습니다.”하고 ‘호호’ 불며 먹었다.

“엄마 물 좀 주세요”

“자, 승희야 맛있는 우유좀 먹어봐라 몸에도 좋은 식품이야!”

그 말을 듣고 나는 뒤로 주춤주춤

“엄마, 내가 우유 싫어한것 알잖아요. 먹기 싫어요”

“승희야 왜 너만 유별나게 우유를 안먹니? 어휴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엄마 아무튼 난 우유가 싫어요. 그냄새 하면 비위가 상한단 말어요.” 방문을 “탁”닫고 나갔다.

학교에서도 “이달 우유신청 할 사람 손 들어봐요” 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에 나는 번번히 손을 들지 않았다.

“어휴 왜 이리 우리반은 우유를 적게 먹니? 우리 몸의 건강에도 일상 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식품 중의 하나지 그러니 많이 많이 먹어줘라”

나는 그말을 듣고 ‘나도 한번 먹어볼까’하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다시 머리를 흔들었다.

그 다음날 새벽 5시경이었다.

기분 좋은 꿈을 꾸며 자고 있는데 누가 몸을 뒤척인 것이다.

“음, 음, 누구야?”

“엄마다, 어서 일어나 아침 운동을 가자꾸나”

“왜요, 뭐한대요”

“글쎄, 아무말 말고 어서 일어나”

잠이 덜 깬 모양으로 줄넘기를 들고 학교 운동장으로 갔었다.

달리기를 2바퀴 반을 돌고나니 어째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탁 트이고 머리도 가쁜해진 느낌이 들었다.

운동도 요리조리

“육육, 끽끽”

줄넘기 100개

“쑹쑹, 획획”

마지막으로

“하하…… 하……”

숨쉬기 운동이었다.

“엄마, 뭔지 알수 없는 기분이 드는데요”

“아마 그럴꺼다”하고 웃으셨다.

그런데 이것이 엄마의 꾀라는 것을 그 당시 모르고 있었다.

집쪽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뒤쪽에서 들려왔다.

그러더니 우리 골목앞길에 세웠다.

엄마가 가서서

“이리 주세요”

그 아저씨께서 “예” 하시더니 우유500ml 하나와 요구르트 한개를 주셨다. 나는 그 우유를 보고 우유가 먹고 싶은 입맛이 당겨졌다. 엄마에게

“엄마, 나 조금만 우유 먹을게요 이리 주세요”

어머니께서는 시치미를 뚝 떼시고

“원래 우유를 싫어하지 않았니?” 하시며 말씀하셨다.

“왠지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걸요!”

“그래, 그럼 한번 먹어봐라” 하시며 건네주셨다.

“꿀깍, 꿀깍, 아 맛있다.” 하고 반이상을 먹어버렸다.

이 모습을 보시고 어머니께서

“후후후, 호호호”하고 웃으신 것이었다.

나는 조금 화난 표정으로

“엄마, 엄마딸이 지금 우유를 많이 먹었는데, 웃기만 하실 거예요”

“승희야, 엄마가 낸 꾀가 바로 그것이었던단. 너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우유를 먹이기 위해서”

‘아차! 그래서 아침 운동을 가자고 하셨구나’

“엄마, 최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지”하고 엄마한테 안겼다.

그날 학교 시간에도 싱글벙글 웃음이 자르르 찰찰 넘쳤다.

그런 일이 있던 며칠 후 엄마께서 아빠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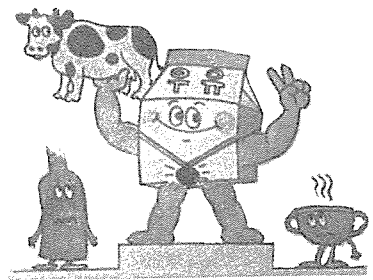
“우리 승희가 우유도 먹을수 있어요. 이제 죽죽 클수가 있어요”하시자 아빠께서

“어디, 한번 일어서 봐라. 정말 장단지가 길면 키가 큰 다는데 장단지가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구나 그 대신 계속 우유를 먹어 키가 커”

“네 우유를 많이 먹어 키가 커질래요”

“그래라, 하하하, 호호호”

그날 저녁은 정말 즐거운 저녁이었다. 우리 가족 앞에서 칭찬도 받고 기분도 최고 좋은 날이었다.



입선



고마운 우유

서울양전국민학교
3의 2 한 정 필

지난 토요일 호종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
엄마를 따라 병문안을 갔다. 병원에 처음 가본 난
어리둥절 했다.

하얀 침대에 누워있는 호종이는 링겔주사만 맞고
얼굴이 핏색하고 불쌍해서 난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가 고모가 밥을 제때에 못먹었다고 시켜주고
오신다고 잠깐 나가신 틈에 내가 들고 온 봉지에서
우유를 하나 꺼내 호종이한테 주었다.

엄마께서 금방 돌아오셨는데 호종이는 별안간 아프
다고 야단이다.

“간호원! 의사선생님!”

엄마는 당황하셔서 밖으로 뛰어나가시고 의사 선생
님이 오시고 호종이 수술한 배와 얼굴 모두를 살펴
보셨다.

“호종아 조금만 참아”

해도 호종이는 너무 아파하고 토하고 머리와 얼굴에
땀이 범벅이고 야단이다. 토하는데 우유가 나오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아니 애를 죽일려고 우유를 먹었어요!”하며 엄마
를 야단치셨다.

“우유를 먹었니?”

난 얼른

“엄마 내가 하나 컸어”어어서 고모가 들어 오셨다.

“왜 이러니! 호종아!”

“아니 어린애를 두고 보호자가 어딜갔다 오는 거에
요?”

고모도 의사 선생님한테 혼이났다. 나는 내가 잘못
해서 이런 일이 생겨서 호종이가 너무 아파해서 나도
영영 울었다.

엄마와 고모는 나 때문에 죄지은 사람같이 서있고

의사와 간호원 언니는 호종이 가슴을 누르며 가래침을
뱉으라고 하고 모두 토하게 했다.

그날밤 우린 집에도 가지 못하고 호종이 옆에서
더 아플까봐 걱정을 했다.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고모는 이제 됐다 하시면서 간호원실에 다녀
오더니 간호원 누나가 오셨다.

“방귀가 나와서 이젠 쥬스도 우유도 먹을 수 있단
다.”

“방귀가요?”

“방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래 수술하곤 방귀가 나와서 장속에 있던 가스가
나와야 그 다음부터 먹을 수 있단다.”

호종이는 빙그레 웃으면서

“나도 이제 우유를 먹을 수 있다.”하고 좋아했다.

“금방 혼나고도 우유를 또 먹으려고 그래도 참아야
지.”

그 이튿날부터 호종이는 조금씩 조금씩 먹기 시작해
서 퇴원해서는 큰 우유도 모자라 2개씩 먹으며 건강을
찾았다.

“호종아 그때를 생각해서 조금만 먹어 또 혼나지말
고” 하면

“형 난 우유가 제일 좋아 우유를 많이 먹어야 형보
다 크지” 하며 익살을 부린다.

우유는 정말 고마운 것이다. 호종이를 살릴 수 있던
것은 우유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수술을 받고 소화하
기가 힘들어 밥을 못 먹었을 때도 우유를 먹고 살수
있었던 것이다.

호종이는 이다음에 젖소를 키워서 우유를 짜서 먹을
것이라고 하여 우리는 크게 웃었다.

우유대장

광주학강국민학교
6의9 주 남 월

‘따르릉...’

6시를 알리는 자명종소리에 실눈을 뜨고, 일어난 나는 얼른 대문으로 뛰어갔다.

대문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빠의 신문과 우유가 놓여 있었다.

나는 얼른 우유 한컵을 마시고, 대문을 나섰다.

동네를 한바퀴 돌고 집앞까지 깨끗히 쓸었다. 옆집 아저씨께서는 기특하다고 칭찬도 해 주셨다.

내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우유를 한컵 마시고 운동을 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우유를 매일 두컵씩 우리가족은 마셨었다. 그런데, 나는 우유를 무척 싫어해 ‘우유’이 두자만 들어도 인상을 찌푸렸다.

그때는 우유가 이상한 냄새가 나고 또, 소 새끼가 먹는 것이라 어떻게 우리들이 먹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었다. 엄마, 아빠께서는 이런 나의 생각을 고쳐 주시려고, 무척 애를 쓰셨다.

그래서, 우유를 싫어하는 내 우유까지 매일 배달을 시키셨다. 하지만, 그 우유는 번번히 동생들이 마시고, 나는 우유를 더욱 싫어했다. 그런데, 마침 휴일이 돌아오자 아빠께서는

“오랜만에 우리 야외로 소풍이나 갔다올까?”하시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모두 좋아서 집이 떠 날아갈 것처럼 큰 소리로 “예”하고 대답을 했다.

우리가족은 짐을 준비해 떠났다. 아빠께서는 어느 시골 목장에서 차를 멈추셨다. 말로만 들던 목장의 푸른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으며, 신선한 공기가 기분을 상쾌하게 했다.

그 곳에는 얼룩 젖소들이 아주 많았다. 얼룩 젖소를 닮은 얼룩 송아지가 한가롭게 넓고 푸른 들판을 뛰어

다니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송아지’ 노래가 콧노래로 나왔다.

어떤 아저씨가 나오시더니 아빠를 보시고, 반가와하며 서로 껴안으시고 웃으셨다.

우리는 목장을 구경하였다.

아저씨께서는 나를 젖소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다.

아저씨께서는 젖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한번 해 보라고 하셨다.

나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아저씨가 시키신대로 우유를 짜 보았다. 처음에는 잘 안되었는데, 해 보니 신기하고 정말 재미있었다.

우유도 짜보고 목장 구경을 한 바퀴하고 나니 아직 점심 먹을때는 이른데, 몹시 배가 고팠다. 신선한 우유 냄새 때문인지 나의 고포배는 더 고포왔다. 그래서, 우유를 손으로 짰어 혀에 문혀보니 끈적끈적하고 조금 짹짹했으며 한편으로는 달콤한 맛이 입맛을 끌었다.

배고픈 김에 꿀꺽꿀꺽 몇모금 마셨다. 그날 배가 아파 혼이 났는데 알고보니 원액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접 젖소의 젖을 만져 우유를 짜보고, 우유의 신선함을 느껴서 인지 그때부터 우유를 좋아하게 되었다.

지금은 매일 같이 일찍 일어나 우유를 꼭꼭 한컵씩 마신후, 동네를 한바퀴씩 돌아서 건강하고, 또 학교 육상선수로 뽑혔으며 대회에 출전도 하는등, 체육시간에는 재미를 느끼고 열심히 한다.

아이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나를 ‘우유 대장’이라고 부른다.

사실 내 별명은 ‘주물럭’이다.


이 별명을 부를때마다 속상해 화도 많이 났고, 이름을 바꾸고도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친구들이 ‘우유

대장'이라고 부를때마다 웃음이 얼굴에 번진다. 우유 때문에 새롭게 받은 나의 별명, 우유가 정말 고맙게 느껴진다.

'우유 대장' 어쩐지 건강하고, 튼튼한 것을 상징하는

것 같은 이 별명이 좋아 즐겁지만 하다.

내일도 우유 한컵으로 나의 하루는 시작 될 것이다.



KIM MIN YEONG

내가 송아지인가

대전시 청파국민학교
4의2 김 민 영

“응아, 응아”

아기의 울음 소리가 우리 집의 공기를 요란하게 흔들었다.

‘아휴, 공부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람?’

난 투덜대며 안방으로 갔다.

“어머니 누구예요?”

“응 이웃집 아기란다. 사정이 있어서 좀 봐주기로 했다.”

엄마는 아기가 귀여운 듯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기도 하셨다. 그때,

“우유예요.”

우유배달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우유를 가져다 우유병에 넣어 아기에게 갔다. 아기는 우유를 보더니 배가 고팠다는 듯 우유병을 빠는 흥내를 냈다. 엄마께서는 빙긋 웃으시고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셨다.

“민영아, 너도 우유 먹으렴.”

“싫어요. 내가 송아지인줄 아세요?”

난 엄마 손의 우유를 밀치며 투덜거렸다. 방을 나왔다. 다시 공부방으로 들어갔다. 공부가 잘 되지 않았다. 아까 엄마께 버릇없이 굴어서 그런 모양이다. 얼마 후

“민영아, 밥 먹으렴.”

어머니께서 부르셨다. 난 엄마께 꾸중을 들을까봐 고개를 푹 숙이고 나갔다. 밥상에 앉았다. 상을 가만히 둘러보니 맨 김치였다. 난 다시 한번 상을 쨍그리며 소리쳤다.

“완전히 송아지 취급하시네”

난 손가락을 탁 놓고 방에서 나오려고 하니 엄마께서 내 손목을 잡으셨다.

“민영아, 우유와 김치를 먹는 사람은 모두 송아지라고 생각하니? 우유와 김치를 먹으면 얼마나 튼튼해지는데……”

어머니께서는 섭섭하신 표정으로 내 손을 살며시 놓으시더니 진지를 잡수셨다. 난 엄마의 말씀을 들으니 부끄러웠다. 방에서 나왔다. 푸른 하늘을 쳐다보니 굉장히 높아 보였다. 엄마께 용서를 빌고 싶은 생각이 났다. 가만히 생각하니 지난 실과 시간에 선생님께서 우유는 사람의 이도 튼튼히 해주고 키도 자라게 해준다는 말씀이 생각났다.

‘그렇게 좋은 식품을 내가 고집 피우고 안 먹었다니...’

후회스러웠다. 허약한 사람도 우유를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소리도 들었다. 아까 우유를 먹기 위해 우유병을 빠는 시늉을 하던 아기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동안 송아지 먹이라고 먹지 않았던 우유가 오늘따라 먹고 싶었다. 난 벌떡 일어나 냉장고 앞으로 뛰어갔다.

‘나도 많이 먹고 건강해야지.’

냉장고 문을 열고 우유를 꺼내 꿀꺽 꿀꺽 마셨다. 신선한 우유가 참 고소하다.

‘이렇게 좋은것을 송아지 먹이라고 하다니……’

내가 참 어리석었다. 후회스럽기도 하였다. 그리고 우유를 잘 먹어 튼튼한 어린이가 되겠다고 생각했다.